

與, 내주 노동개혁 5개 법안 당론 발의

이인제 “14일 노동정책 당정협 법안 조율”

최경환 “노사정 타협 못하면 정부 입법 추진”

새누리당이 다음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가속 페달’을 밟을 태세다. 당 노동시장전진화 특별위원회(이하 노동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14일)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에는 당 노동특위 및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노동특위는 당정협의 이후 다음주 중반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

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를 당론으로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집권 여당이 총력을 다해 힘을 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당장 연말부터 20대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노동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속도전’에 나서

서하겠다는 의지도 읽혀진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노동개혁 노사정 대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내주 중 정부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YS 중앙, DJ·노무현 구석에 “누가 당 주인이야” 새정치 사진 소동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회의실 배경 현수막의 전직 대통령들 사진 배치를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소동은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참석자들이 자리를 옮기던 중 정성호 민생본부장이 거칠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 본부장이 현수막을 가리키며 “이게 뭐예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빨리 걸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누가 당 주인이야. 저런 사진을 넣어 놓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저 구석에 가 있고”라고 거들었다.

오는 18일 창당 60주년을 앞두고 교체된 현수막에는 ‘국민과 함께, 민주 60’이라는 기념 문구가 중심에, 주변에는 과거 민주당의 역사를 담은 사진이 배치돼 있다.

소동 원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상당수 인사들의 거리행진 사진이 눈에 가장 잘 띄는 상단 가운데 배치된 반면 김대중(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은 각각 좌·우측 하단 구석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이 “저기 DJ(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을 위로 올리라”면서 수습에 나섰고 현수막 교체 작업을 직접 챙긴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시간을 빨리 맞추려고 했는데 의견을 미처 다 듣지 못해 이렇게 됐다. 바꾸겠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부터 ‘국감’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마련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감사 준비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봐주기 꼼수 말고 신동빈 증인 채택해야”

강기정 의원, 국감 증인 놓고 충돌 새누리 질타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정면충돌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9일 ‘재벌 봐주기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사과와 신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1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나 출석 날짜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7일 공정위의 증인 출석이 아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국감에 출석시키겠다는 (여당의) 꾀반은 결국 증인 채택을 하지 않겠다

는 것”이라며 “지난 7일 정무위원회의 파행은 이런 속임수를 간파하고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롯데 사태 이후, 여야는 앞다투 신동빈 회장 등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공언한 것은 물론, 이번 국정감사에서 7개 상임위에서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며 “하지만 신 회장은 지금 그 어느 상임위에서도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증인

채택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 회장을 종합감사에서 출석 시키자는 여당의 방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 제기했다. 그는 “기업 증인 뿐 아니라 모든 증인은 해당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 부른 것이 관례”라며 “롯데는 당연히 지배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위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행 국회에서는 관행적으로 해당 기관 국정감사 때 증인을 1차로 소환하고 불응할 경우, 종합감사 때 2차로 소환하고 다시 불응할 경우 고발을 해왔다”며 “신 회장은 국감 마지막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응할 경우, 제제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육군 복지회관, 전투병 불법파견 수익 간부 회식”

권은희 새정치 의원

일부 군 부대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숙박·요식업소를 운영하면서 일반 전투병을 무보수 종업원으로 파견해 100여 원 가량의 손익을 올린 뒤 이중 절반 가량을 지휘관 업무추진비로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권은희 의원이 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복지회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단·사단급 일부 부대들이 지난해 전국 131곳 복지회관을 운영, 총 101억3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군 부대 복지회관에서 일하는 병사는 전국적으로 모두 1142명으로, 인가규

모 823명보다 319명 많았다.

특히 사실상 무급인 병사들의 인력을 활용해 조성된 수익의 절반 가량은 참모회식비·간부격려금 등 부대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이 부대장 쌈짓돈을 챙기려고 병사들을 종업원으로 전용해 수익사업을 몰두하면서 주민 생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인가 외 파견 병사들을 원대복귀 시키고 부당 영업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



“호남고속철도 주변 방음벽 설치 필요”

전정희 새정치 의원

호남고속철도 개통(4월 2일) 이후 고속철도 주변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9일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소음공해에 따른 방음벽 설치면적은 모두 171건.

지역별로는 전북 김제(40건)·정읍(27건)·익산(24건), 장성(17건), 광주시 광산구(8건) 등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5월의 실측 결과에 따라 60데시벨(dB)이 넘는 26곳

에 방음벽을 연내에 설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고속철도 운행 때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아닌 낮시간대 2시간, 밤시간대 1시간을 측정해 그 평균값이 60데시벨(dB) 이상이 나와야만 방음벽이 설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주간 65dB·야간 60dB 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전정희 의원은 “주거권과 수면권을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호남고속철이 지나는 주거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애국페이’ 예비군 1인당 1만원 쓰고 훈련

백군기 새정치 의원

예비군들이 훈련을 갈 때 쓰는 비용보다 군이 지급하는 훈련보상비가 1만 원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의원이 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 훈련보상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이 지급하는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1만2000원로 실비는 1만190원 더 많은 평균 2만2190원이다.

국방부는 향토예비군법(제11조)에 따라 교통비 6000원·식비 6000원 등 예비군 훈련보상비로 1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군들이 지출하는 평균실비는 교통비 1만3210원·식비 8980원이

다.

전국 187개소 훈련장 중 교통비 6000원으로 이동가능한 훈련장은 86개소(45.98%)에 불과하며 버스노선이 없거나 정류장과 3km 이상 떨어져 택시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훈련장은 42개소(22.45%)다.

백 의원은 “아직 학생이거나 취업준비 중이라 벌이가 없는 청년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애국페이’를 내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라며 “현실에 맞는 훈련 보상을 책정하는 등 국가의 책임부담을 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